

수출시장 긴급점검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확대 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1. 북미지역 / 1

2. 구주지역 / 12

3. 중국지역 / 23

4. 일본지역 / 32

5. 아시아·대양주지역 / 38

6. 러시아·CIS지역 / 44

7. 중남미지역 / 50

8. 중동·아프리카지역 / 54

북미지역

I. 경제여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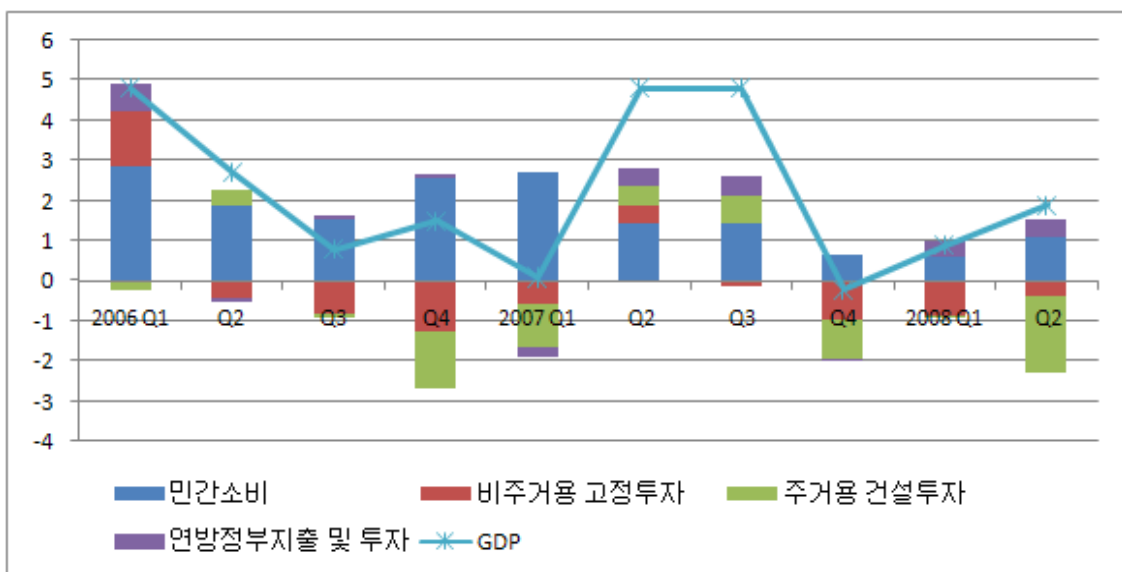
1. 경제현황

□ 2007년 4/4분기 이후 경기 부진 지속

- 미국 경제는 신용경색 심화, 주택경기 침체, 물가불안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기 부진 지속
- 올해 2/4분기 미국 경제는 1.9% 성장하여 연초 전망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5~7월 동안 이루어진 1,500억 달러 규모의 세금환급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
- 주택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Fannie Mae, Freddy Mac 등 모기지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심화 등 실물경제 및 금융부문 불안요인 지속

※ 미국 주택시장 성장률 : -25.1%('08. 1Q) → -15.5%('08. 2Q)

[미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원 : 美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캐나다 경제도 미국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2007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 지속
-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국 경기부진, 캐나다 달러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에 따라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최근의 경제상황을 평가

2. 향후 전망

□ 당분간 경기부진 지속 전망

- 미국 주택시장 침체, 고용사정 악화, 금융부문 부실 등의 영향으로 소비 및 투자 위축 지속
- 미국 경기부진의 진원지인 주택시장 경기침체는 2009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美 부동산시장 분석가들은 향후 10% 이상의 추가 가격하락 전망
- 금융부문 부실 심화에 따른 미국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 기준 강화, 실업률 상승 등에 따라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 예상
- 캐나다 경제도 미국 경기침체, 물가상승, 수출부진 등에 따라 2009년까지 경기 둔화세 지속 전망

□ 2009년 말 이후 경기 회복세 진입

- 2009년 말 이후 미국 주택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도 진정되면서 경기회복 전망
-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민간소비 및 기업의 투자활동 회복 예상
- 이에 따라, 북미지역은 2009년 말 이후 W자형 또는 완만한 U자형의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II. 북미지역 시장 여건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전망

□ 2008년 상반기 기준, 미국 수입액은 10,549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12.9% 증가

○ 2008년 상반기 중 비교적 높은 수입 증가율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실질 수입증가율은 미미

- 원유 등 광물성 연료를 제외한 수입 증가율은 4.3%에 불과

○ 국별 수입액은 캐나다 1,751억불(12.5%), 중국 1,542억불(4.1%), 멕시코 1,097억불(8.7%), 일본 737억불(2.9%) 순

- 우리나라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7년 7위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9위로 하락

※ 우리나라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2.43%('07) → 2.31%('08 1~6월)

□ 對중국 섬유 수입쿼터 해제 임박, 한국 섬유수출 타격 우려

○ 미국의 對中 섬유 수입쿼터가 2008. 12.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중국산 섬유제품 수출 급증 예상

- 수입쿼터 해제효과와 함께 중국의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으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제고

※ 중국정부는 지난 8.1일부로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1%에서 13% 인상

♣ 미국의 對中 섬유 수입쿼터

- 미국-중국 간 섬유협정(2005년)에 따라 3년간(2006년~2008년) 부과
- 대상품목 : 니트패브릭, 셔츠, 바지 등 원단 및 의류 34개 품목

○ 對中 수입쿼터 해제로 인해 현재 감소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섬유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고유가 영향으로 미국 내 자동차 시장 변화

- 유가 급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유류대 부담이 증가하면서 대형차량 수요는 감소하고 연비가 높은 중소형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는 증가
- 이에 따라 북미 자동차 메이커들은 대형 트럭과 SUV 차량 생산을 줄이고 하이브리드카 및 소형차 생산을 확대

♣ 관련사례

- 도요타는 최근 캐나다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인 프리우스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데, 2008년 상반기 중 프리우스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대비 414% 증가한 735대

- GM, Ford, Chrysler 등 美 자동차 3사는 미국 내 자동차 수요 감소로 판매부진이 지속되자 자동차 생산량 감축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의 對美 수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

□ 반도체 수요는 확대 추세

- 미국 내 반도체 수요는 2008년 1/4분기에 저점을 통과하여 올해 하반기 부터 본격적인 회복세 시현 전망
- 그동안 수요가 부진하였던 D-Ram, Nand Flash Memory 등에 대한 수요가 반등될 것으로 보이며,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따라 Flash Memory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III. 진출확대 전략

1. 수출확대 유망분야

□ 부품 아웃소싱

- 자동차 부품 위주의 對美 부품수출 구조에서 탈피, 글로벌 아웃소싱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는 중장비 및 상용차 부품시장 공략 필요

[주요 중장비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관심 품목]

업체명	관심 품목
Caterpillar	Hydraulic Hose, Fastener, Forging, Steel Fabrication, Casting(Cylinder Head & Block)
John Deere	Gravity Casting, Plastic Injection(Front Bumper), Wire Harness & Switch, Front Light & Assemblies, Tool & Die
Eaton	Cold Forming Part, Hydraulic Components, Forging, Die Casting
TEREX	Hydraulic Components, Steel Fabrication, Wire Harness, Cabs Electronic Controls, Tire & Wheels, Crawler Tracks
International Truck & Engine	Forging, Rubber, Modular Parts for Commercial Truck, Engine Components

- 최근 비용절감 압력증대로 항공기 및 항공부품 제조사 등 주요 항공우주 기업들의 경우 통상적인 기계가공은 대부분 아웃소싱
 - 통상적인 기계가공 등 비핵심 업무는 외주 업체에게 맡기고, 신기술 개발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함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Boeing사의 경우 부품의 약 70%를 해외 아웃소싱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진출은 미미한 상황
 - 최근 들어서는 중소형 항공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도 확대 추세에 있는 데, 주요 아웃소싱 품목은 동체 부품, Sheet Metal Components, Wind Leading Edge, Hinge Assembly, Trunnion 등

♣ 중소 항공업체의 아웃소싱 확대사례 : Cessna사

- 동사는 개인용 항공기 제조업체로 세계 비즈니스 제트기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Gulf Stream, Bombardier에 이은 세계 3위의 소형 항공기 제조업체
- 동사는 아직 해외 생산시설이 없으며, 폴란드와 멕시코에서 일부 품목을 소싱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미국 내에서 자체생산
- 최근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 아웃소싱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대상 중의 하나로 아시아 지역을 고려하고 있음.

□ 섬유산업

- 미국 경기부진에 따른 美 섬유 바이어들의 글로벌 구매전략 전환 추세 활용
 - 미국 바이어들의 오더 규모가 줄면서 대량 오더만 수용하는 중국에서 중·소량 오더도 수용하는 한국 업체에 대한 오더 증가
 - 뉴욕 소재 수입상에 따르면 프린트, 면, 쉬팅 등의 몇몇 품목 오더가 5,000 야드 이상에서 3,000 야드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중국행 오더가 한국으로 전환되는 사례 증가

□ IT 정부조달

- 美 연방정부의 IT 지출 규모는 연평균 5%씩 성장하여 2007년 790억불에서 2012년에는 1,020억불에 달할 전망(자료원 : Input)
 - 부시 행정부는 정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시스템을 통합하고 현대화 하는 e-Gov Initiative를 추진
- 최근 미국 IT제품은 단품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솔루션 형태로 최종소비자(연방정부 포함)에게 판매되고 있음.
 - 이에 따라, 美 연방정부 IT 조달시장 참여시에는 IT 솔루션 기획 단계부터 국내 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전략 필요

□ 플랜트 장비 및 기자재

- 최근 유가 급등으로 오일샌드 등 오일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기자재 수요도 증가 추세
- 열교환기, 타워 등 공정장비 생산 플랜트 및 밸브, 피팅 등 관련 기자재 수출 유망

2. 수출 확대 전략

부품(자동차, 중장비, 항공기)

□ 글로벌 기업의 아웃소싱 활용 : 소싱 에이전트 사업(Sourcing Agent : SA)

- 바이어(해외고객)의 아웃소싱 수요 창출화
 - 기존 국내 수출기업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 바이어의 전략적 유효수요를 접수하여 실질적인 거래성사율을 높이는 선진국형 'Pull형 마케팅'을 구현
 - 바이어의 소싱 의향, 국내기업과 Matchmaking 가능성 등 다양한 잣대로 바이어의 소싱수요 등급화 관리
 - 중장기적으로 KOTRA 직원의 컨설팅 역량 배양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 '소싱 비즈니스 T/F(약칭, SA 시개단)' 파견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및 성과 제고 추진 필요

[세부 추진 절차도(안)]

단계	목표	추진 내용
1단계	SA 사업 모델 구축	▪ 중진공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모델 구축
2단계	바이어 대상 SA 사업 홍보	▪ 바이어 대상 SA 사업 설명회 시행(해외무역관) - 소싱 수요 정보 수집(수요조사 양식 對바이어 배포)
3단계	국내업체 물색	▪ 중진공 및 유관기관 국내 네트워크 활용(1차 추출)
4단계	해외무역관의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해외무역관의 소싱 가능성 검토(2차 추출/최종 후보 선정) - 기타 지역 무역관(수출인큐베이터)과 협력
5단계	유력 소싱 후보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 활동	▪ 국내업체-SA-해외바이어간의 현지 협상 추진 - 성약 달성 시 국내 복귀 또는 현지법인 설립 추진
6단계	사후 처리	▪ 성약업체의 수수료 납입(중진공) 및 사후 관리

□ 미국 A/S 자동차 부품 비즈니스 센터 구축

○ 추진전략

- Autozone, CSK 등 대형 체인점/벤더 확보 및 파트너링
- 'Korea Autoparts Plaza' 유사사업 개최

○ 주요 사업

- KORUS Autoparts Suppliers Plaza ('09 상반기, 신규)
- 라스베가스 자동차 부품 박람회(AAPEX), 라스베가스 튜닝 및 액세서리 박람회(SEMA) 한국관 참가('08. 11)

□ 북미 현지 자동차부품 전문전시회 참가 사업

○ 2009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

- 기간 : 2009.4.20~23 (4일간)
- 장소 : Cobo Center (디트로이트)
- 규모 : 국내 부품업체 55개사 60부스
- 성격 : 전통적인 OEM용 자동차부품 전문전이나, 국내 참가업체와 현지 바이어간 사전 상담주선 방식으로 추진

- 2009 디트로이트 자동차 인테리어 박람회
 - 기간 : 2009. 6월중(2일간)
 - 장소 : Cobo Center (디트로이트)
 - 규모 : 자동차 인테리어관련 국내업체 10개사 내외
 - 성격 : 자동차부품 중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전으로서 2009년에 최초 참가 추진

바이오/기술거래

☐ 기술거래-수출 증대를 위한 복합 파트너링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The 2nd Korea Bio-Biz Day』
 - 부제 : Korea-US Biotech/Pharma Partnering Day
 - 기간/장소 : 2008. 11. 4(화) ~ 5(수), 미국 뉴저지
 - 내용 : 글로벌 제약사 라이선싱 담당자와의 라이선싱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 한·미 주요 제약업체간 라이선싱 및 공동개발 MOU 체결 등

섬유/의류

☐ 對中 수입쿼터 해제 대비 미국 섬유시장 진출확대 사업

- 사업개요
 - 제목 : 『09년 對국 섬유 수입쿼터 해제와 미국 섬유시장 전망』
 - 기간/장소 : 2008. 11월말/서울
 - 내용 : 아시아 지역 원단/의류 생산 메커니즘 최근 동향 및 2009년 전망

☐ 미국 Top 브랜드의류 디자이너 네트워크 구축 공동 사업

○ 사업개요

- 제목 : 『미국 Top 브랜드의류 디자이너 네트워크 구축』
- 기간/장소 : 2008. 9월 이후 매월/뉴욕
- 협력기관 : D2(뉴욕 소재 탑 브랜드 의류 한인 2세 디자이너 모임)
- 내용 : 디자인 및 제품개발 경향, 소싱 동향, 한국산 제품 사용 현황 등 이슈 논의

IT

☐ Korea Tech Preview USA 2008

○ 사업개요

- 기간 : 2008. 11. 5(수) ~ 6(목)
- 장소 : 달라스 Sheraton Hotel
- 참가규모 : 국내 우량 IT업체 50여개사
- 품목 : 혁신형 소비재 IT전자 및 컨버전스 제품
- 주요내용 : 수출/투자유치 상담회, IT 포럼 및 구매정책 설명회

☐ Korea Technology Week 개최

○ 사업개요

- 시기/장소 : 2008.9.24~26/ 워싱턴 인근 리조트
- 참가업체 : 경기도 소재 업체 15개사
- 사업 내용 : 무역투자 세미나, 제품 발표회, 전시상담회 동시 개최

□ Telecommunication Channel Forum

○ 사업개요

- 시기 : 2008. 10. 8(수)~10(목)
- 장소 : 미국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 힐튼호텔
- 참가업체 : 10개사 내외
- 추진목적 : AT&T, Verizon, Sprint, T-Mobile 등 미국 4대 통신업체 대상
국내 이동통신업체 및 통신관련 제품 제조업체의 아웃소싱 기회
제공
- 주요행사 내용 : 한국 통신시장 설명회 및 기업별 PT, 메이저 통신사와의
아웃소싱 상담회 개최

□ IT 컨버전스 Smart Grid 협력단

○ 사업개요

- 시기 : 2008. 10. 21(화)~24(금)
- 장소 :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크라운플라자
- 참가업체 : 한전, 전력연구원 등 10개사 내외
- 추진목적 : 환경 및 바이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IT융합기술 분야(전력선
통신, 원격검침, 배전자동화) 수출확대 및 산업육성 도모
- 주요행사 내용 : 한미 Smart Grid 협력 컨퍼런스(우리나라 산업현황 및 정책
소개, 주요기업 Show Case), 1:1 상담회 개최, 현지 주요
기업·기관 방문, 시장진출 세미나 개최 등

구주지역

I. 경제여건 및 전망

1. 경제현황

□ 고물가 + 경기침체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

- EU 지역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도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 고조
 - 올해 1/4분기 GDP 성장률은 0.7%에 그쳤으며 2/4분기 들어서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0.1%)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 지속
 -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를 기록하는 등 물가불안 심화

[EU지역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6월
경제성장률	2.1	2.8	1.7
실업률	8.1	7.1	6.8
물가상승률	2.3	2.1	4.4
민간소비 증가율	2.0	2.1	1.6
수출(상품+서비스) 증가율	8.8	5.1	4.9
수입(상품+서비스) 증가율	8.9	4.9	4.8

주 : 2008. 6월 물가상승률은 7월 기준

자료원 : Economic Forecast Spring 2008(European Commission), Eurostat

-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 물가급등 등에 따라 민간소비 및 생산활동 위축
 - 미국발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에서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 ※ 올해 2/4분기 영국 Halifax 주택지수는 전분기 대비 8.7% 하락

- Euro Zone의 올해 2/4분기 소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U 주요국의 공업수주량도 전년 동기대비 대폭 감소

※ 주요국 공업수주량 증감률 : 독일(-6.0%), 프랑스(-16.9%), 스페인(-6.5%), 체코(-6.0%)

2. 향후 전망

☐ 유가 변동이 가장 큰 변수

- 유가 변동에 따라, 소비 및 투자심리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향후 유가의 향방이 경기회복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
- EU 지역 내에서 향후 유가의 향방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으며 유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

☐ 부동산 버블 지역은 경기회복에 장기간 소요 예상

-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2009년도에도 경기회복이 어려울 전망

☐ 동유럽 경제 동반 하락 가능성 높아

-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등 서유럽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호황을 누려왔던 동유럽 경기의 동반 하락 우려

II. 구주지역 시장 여건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전망

□ EU 지역 수입시장 현황(역외교역 기준)

- 2008. 1~5월 동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3%증가, 수입은 11.0% 증가 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040억 유로 적자를 기록
-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EU 경제 특성상, 러시아, 노르웨이 등으로 부터 원유·가스 도입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45.3%)이 역외수입 증가율 상승의 주요인
- 우리나라의 EU 역외 수입시장 점유율은 2.8%에서 2.5%로 감소
- 이는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원유 수출증가로 인해 동 2개국의 역외 수입시장 점유율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
- 경쟁국인 중국 및 일본의 시장 점유율도 각각 1.7%p 및 0.4%p 감소

[EU 역외 수입시장 현황]

순위	대상국	수입액(십억유로)			비중(%)		
		2006	2007	2008(1~5월)	2006	2007	2008(1~5월)
1	중국	189	231	92	14.2	16.2	14.5
2	미국	173	181	77	12.8	12.7	12.1
3	러시아	137	143	72	10.1	10.1	11.3
4	일본	76	78	32	5.6	5.5	5.1
5	노르웨이	79	76	38	5.8	5.4	6.0
6	스위스	71	76	34	5.2	5.4	5.3
7	터키	38	46	19	2.8	3.3	3.1
8	한국	40	39	16	3.0	2.8	2.5
9	브라질	26	32	14	1.9	2.3	2.2
10	인도	22	26	12	1.6	1.8	1.9
총 수입액		1,355	1,425	638	100.0	100.0	100.0

자료원 : Eurostat

□ 한-EU 교역 현황

○ EU는 우리나라 제2의 수출시장

- 2008.1~7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對EU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서 중국(22%)에 이어 2위이며, 매년 10%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세 지속

○ 2008년도 들어 선박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1~7월 對EU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1.1%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 반도체, 건설중장비 등은 크게 감소

- 승용차(-31.5%) : 유가 급등으로 인한 현지 수요 감소
- 반도체(-28.6%) : 가격하락 및 수요 감소
- 건설중장비(-1.5%) : 건설경기 하락

[우리나라의 對EU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

순위	국가명	2007년		2008(1월~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독일	11,543	14.8	6,618	-2.8
2	영국	6,870	21.9	3,692	-11.8
3	네덜란드	4,489	24.4	2,843	20.6
4	폴란드	3,509	34.3	2,493	37.2
5	이탈리아	4,151	-3.1	2,393	-1.5
6	벨기에	2,582	18.1	2,247	52.2
7	프랑스	3,478	1.8	2,158	14.6
8	슬로바키아	2,707	113.6	2,106	42.5
9	스페인	3,925	12.8	2,054	-10
10	핀란드	1,293	-31.9	1,498	137.3
11	헝가리	1,890	57.4	1,061	18.6
12	사이프러스	1,073	-6.9	835	34.4
13	몰타	574	11.4	824	152.6
14	그리스	1,661	-40	808	-32.9
15	스웨덴	950	10.8	590	-0.6

16	체코	966	71.3	511	8.9
17	슬로베니아	426	188.5	509	105.6
18	루마니아	855	-	498	-7.1
19	아일랜드	888	62.9	447	-0.3
20	오스트리아	771	-13.1	398	-8.3
21	포르투갈	414	9.1	272	9.9
22	덴마크	463	-29.2	233	-9
23	불가리아	191	-	102	-12.6
24	라트비아	93	-2.5	94	103.7
25	에스토니아	96	49.9	78	30.1
26	리투아니아	101	9.3	76	60.5
27	룩셈부르크	24	-69.9	8	-33.5
수출 총액		55,982	15.5	35,444	11.1

자료원 : 무역협회 무역통계

□ 對EU 수출 전망

- 올해 2/4분기부터 EU 지역 내 민간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對EU 상품수출 증가율 둔화 전망
 -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미국발 신용경색의 파급효과가 진정되지 않는 한 올해 하반기 對EU 수출 증가율은 한자리대로 하락할 전망
 - EU 지역 경기침체에 따라, 승용차, 반도체, 건설중장비 등 주력 수출 품목의 對EU 수출은 하반기에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
 - EU 지역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휴대폰,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도 EU 지역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III. 진출확대 전략

1. 수출확대 유망분야

☐ 에너지 절약형 제품 시장

○ 고유가 지속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제품 수요 증가

- 주요 제품 : 에너지 절약형 전구, LED 광원 제품, 물 절약 욕실 상품, 전기절약용 센서 및 타이머, 전원 자동차단 타이머, 정원용 살수기, 태양광 가로등 등

☐ 신재생 에너지 시장

○ EU는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원 다양화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

-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인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재생에너지 : EU의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현재 8.5%)

▶ 바이오연료 : 운송연료 중 바이오 연료 비율을 2020년까지 10%로 확대

▶ 온실가스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20%까지 감축

○ 동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목표를 회원국에 배정 → 회원국별 액션플랜 수립 후 이행상황 모니터링

- 이에 따라, 2020년까지 EU 회원국별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될 전망

[EU 회원국별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목표]

국가명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2005년)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2020년)
벨기에	2.2%	13%
불가리아	9.4%	16%
체코	6.1%	13%
덴마크	17.0%	30%
독일	5.8%	18%
에스토니아	18.0%	25%
아일랜드	3.1%	16%
그리스	6.9%	18%
스페인	8.7%	20%
프랑스	10.3%	23%
이탈리아	5.2%	17%
사이프러스	2.9%	13%
라트비아	34.9%	42%
리투아니아	15.0%	23%
룩셈부르크	0.9%	11%
헝가리	4.3%	13%
몰타	0.0%	10%
네덜란드	2.4%	14%
오스트리아	23.3%	34%
폴란드	7.2%	15%
포르투갈	20.5%	31%
루마니아	17.8%	24%
슬로베니아	16.0%	25%
슬로바키아	6.7%	14%
핀란드	28.5%	38%
스웨덴	39.8%	49%
영국	1.3%	15%

자료원 : EU집행위

- EU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 향후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 증가 예상
- 이에 따라, 관련기술 및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유망분야로 부상할 전망

□ 정밀기계 및 기계부품 시장

- 정밀기계 시장이 발달한 EU 지역에서도 국산 제품의 경쟁력 충분
 - 국산 정밀기계는 이미 유럽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 따라서, EU 정밀기계 업체의 아웃소싱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전략적 M&A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 및 유럽 기계산업 내 네트워크 형성 필요

□ 소형 자동차 시장

-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형 자동차 수요 증가
 - 유가 급등에 따라 EU 소비자들은 연료소모가 많은 중대형 승용차 보다는 연비가 높은 소형 승용차를 선호
 - 이에 따라, 향후 EU 지역에서 경차 등 소형 승용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소형 자동차 부품 수요도 증가할 전망

□ 고소득층 소비 시장

- 고소득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으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구매력 유지
 - 이러한 고소득 계층의 소비성향을 감안, 고품질/고가격대의 프리미엄 제품 마케팅 확대 필요
 - 스위스의 경우,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동안 귀금속, 보석류 등 고가품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79%이상 증가하였으며, 터키에서는 고소득 계층의 대형차 구매 증가세

□ 대형 유통업체 PB 제품 시장

- EU 경기침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중저가제품 구입 확대
 - 이러한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가격 거품을 뺀 중저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PB 제품시장 확대 전망

2. 수출 확대 전략

□ 한-EU FTA 조기 타결

- 한-EU FTA 조기 타결을 통한 우리제품 가경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필요
- 『Copenhagen Economics』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은 36% 증가하고 EU 수입시장(역외 기준) 점유율은 현재 2.8%에서 3.9%로 증가할 전망
- 한-EU FTA 수혜 예상품목은 자동차(40%), 전기·전자(13.5%), 섬유(9%), 운송 기계(6%), 의류 및 가공식품(4%) 등
- ※ 괄호 안은 수출 증가율 전망치

□ 신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

- EU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관련에너지 시장 급부상 전망
-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 태양광판, 태양광 발전기기, 소형 열병합 발전기 등과 같은 건물 에너지 절약제품 상담회 추진
-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 참가지원, CDM사업 지원, 솔라시티 등 국내 에너지 클러스터 역량지원 사업 강화

□ 하이테크 산업 M&A 투자진출 확대

- 추진배경
- 유럽의 하이테크 산업은 기술진입 장벽이 높고 신규 진입이 어려우므로 현지 업체인수 등 적극적인 M&A를 통한 시장진출 필요
- 동유럽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의 기술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M&A 수요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

○ 사업개요

- 시기 : 2008. 12월
- 내용 : 중동부 유럽 2~3개국 M&A 투자환경 조사 및 상담회

□ 대형 유통체인 PB 제품 진출 사업

○ 추진배경

- 유통업체 대형화 및 영향력 확대로 PB 제품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대상제품도 기존 식품군에서 의류, 잡화 및 완구 등으로 확대

○ 사업개요

- 시기 : 2008년 또는 2009년
- 추진방법 : 기존 “대형 유통망 초청 상담회” 사업을 확대/세분화하여 PB 담당자 초청사업 추진

□ 정부조달 시장 진출 확대

○ 정부발주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

- 최근 동유럽 각국에서 EU 기금을 활용한 항만개발 등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는 점을 활용, 프로젝트 발주처 및 담당자 초청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EU 입찰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 EU 주요국의 정부입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 제공

□ 유럽 디자인 지원센터 설립

○ 추진배경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여 제품 품질에 비해 디자인 수준은 아직 미흡
-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요인 중 디자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디자인 부문 역량확충 필요

○ 사업내용

- 런던, 파리, 베를린, 밀라노 등 주요 도시에 디자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해외 디자인 트렌트 정보수집·전파, 국내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국내 디자이너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 추진

중국지역

I. 경제여건 및 전망

1. 경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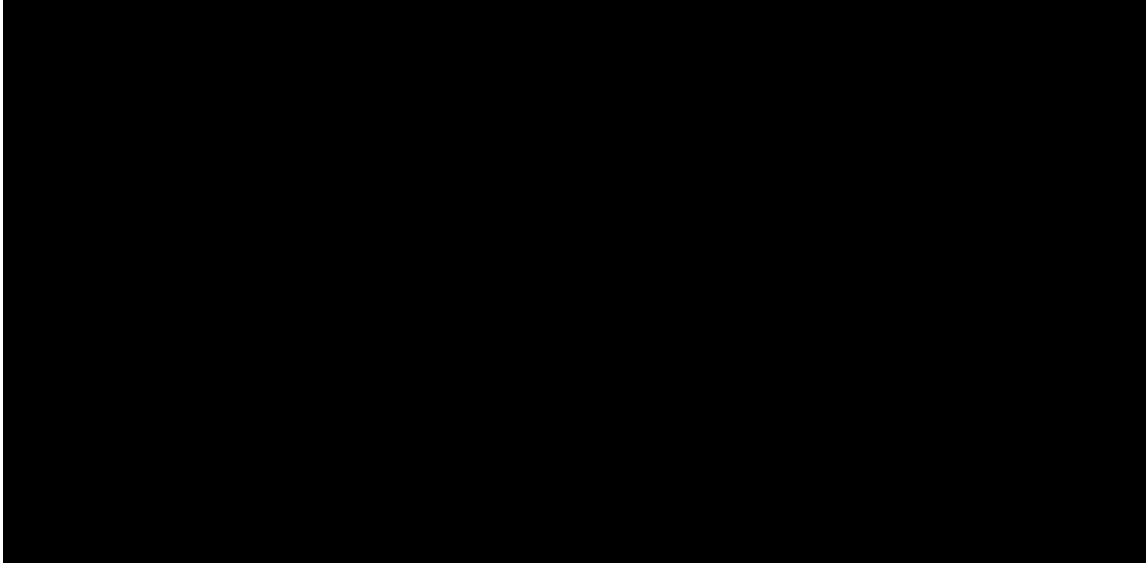
□ 경기부진 우려 증가

-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로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 우세
- 2008년 상반기 중국의 경제는 전년 동기대비 10.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10%는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물가불안 심화

- 과거 5년간 고성장·저물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여 왔던 중국 경제는 최근 물가급등에 따라 경기둔화 가능성 증대
- 소비자물가는 과거 5년간 2.6%대를 유지하였으나 올해 3월에 8.0%, 7월에는 6.3%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불안 지속
- 2008. 7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10%p 상승한 10.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996년 이후 최고치
- ※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2007. 7월 이후 12개월 연속 가파른 상승세
- 생산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원인은 기업들이 생산 원가 증가분을 아직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최근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 향후 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킬 경우, 소비자 물가 불안이 더욱 심화될 전망

[최근 중국의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 전력난 및 생산원가 증가 등에 따라 기업 부담 증가

○ 최근 석탄 공급부족으로 과거 10년 이래 최악의 전력난 발생

- 전력난 해결을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월초 감숙성과 광서자치주 등 일부 지역의 전력요금을 인상하고 18일에는 국가에너지국 국장이 올림픽 이후 유가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언급
- 이러한 전력요금 및 유가 인상은 소비자물가를 더욱 상승시키고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

※ 올해 들어 생산자물가 급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인해 67,000개의 중소기업이 도산

2. 향후 전망

☐ 올림픽 이후 경기 급락은 없을 전망

-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올림픽 이후 중국 경기의 급격한 하강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

- 중국 정부는 올림픽 이후에도 내수 진작 및 증시 부양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북경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

※ 올림픽 개최도시의 GDP 비중 : 서울(25%), 일본(15%), 중국(3.6%)

- 세계적인 물가급등,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10% 이상의 고도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증시 부양대책 추진 예상

- 중국 정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보류되었던 경비부양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사에 대한 용자 및 대주 허용,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 등 증시 부양대책이 발표될 가능성 높음.
- JP 모건은 침체된 중국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증시안정기금이 필요하다고 언급

II. 중국지역 시장 여건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전망

1. 중국지역 시장여건

□ 위안화 평가절상

- 올해 對美 환율이 6.3위안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위안화 평가절상 가속화 → 수입가격 하락에 따라 수입 증가 예상
- 단,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의 수출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한국의 對中 수출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안화 평가절상은 우리에게 악재임과 동시에 호재

□ 내수시장 확대

- 최근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이제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
- 올림픽 특수, 소득향상 등에 따라 그동안 소비 및 투자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중국 내수경기 지표인 소비재소매총액은 51,043억 위안으로 전년도 총액의 57%까지 육박

[중국의 연도별 소비재소매총액 추이]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비재소매총액(RMB 1억위안)	59,501	67,177	76,140	89,210	51,043
증가율 (%)	13.3	12.9	13.4	17.2	-

주 : 2008년은 상반기 기준

□ 수입관세율 인하

-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매년 인하되어 관세장벽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 지난 2000년도에 16.4%였던 평균 수입관세율은 2004년도에 10.4%, 2006년도에 9.9%, 2008년도에는 9.8%까지 인하

□ 지진피해 복구에 따른 물품 수요 증가

- 지진피해 복구 작업에 따라 중국내 건설투자가 단기적으로 증가하면서 건설 원부자재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對中 수출전망

□ 내수품목 위주로 증가세 유지할 듯

- 내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원부자재 및 부품 수출은 감소 전망
 - 최근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중국의 생산능력이 확대되면서 수입 원부자재의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 중

□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 최근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평가절상 됨에 따라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전망
 - 단,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의 수출둔화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유발할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지진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對中 수출기회 확대

- 지진피해 복구사업에 따라 건설 중장비 및 건축 자재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III. 진출확대 전략

1. 수출확대 유망분야

☐ 평판디스플레이

- 중국 내 평판디스플레이 TV 판매 호조세 지속
 - 경제성장에 따라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평판디스플레이 TV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 특히, 올해 말로 평판디스플레이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세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연내에 통관을 마치려하고 있어 하반기에 수입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

☐ 합성수지

- 2010년 엑스포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지진 복구사업에 따른 건축 수요 증가 등에 따라 합성수지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무선통신기기부품

- 이동통신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휴대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휴대폰 부품수요도 증가세
 - 특히, 우리 휴대폰 기업들의 공격적인 對중화권 마케팅의 결과로 국산 휴대폰 수요 꾸준히 증가

☐ 선박류 및 부품

- 중국 조선업 호황에 따라 선박수주가 급증하면서 건조설비 및 원부자재 수입 증가 전망
 - 중국 조선업은 이미 향후 3년치 건조물량을 확보할 정도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 향후 위안화 평가절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수주된 선박 제조를 위해 필요한 원부자재의 경우, 내년 초에 대량 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광학기기 부품

- 디지털 카메라, 레이저 프린터, CCTV 및 레이저 응용제품 등 광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광학기기 부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
- 중국 광학기기 시장은 일본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최근 국산 제품도 품질 향상으로 현지 인지도 제고 추세

2. 수출 확대 전략

□ 내수 소비시장 공략

-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내수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에 따라 향후 내수시장 더욱 확대 전망

- '08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

주요 사업명	내 용
충청남도 우수 상품전 (9월/상하이)	▪ 지자체 유망품목 전시상담회 - 충남도- 지역본부 공동사업으로 추진 - 참가업체 : 56개사
광저우 중소기업 박람회 (9월/광저우)	▪ 중소기업 박람회 주빈국 참가 - kotra, 중기청, 킨텍스 공동 추진 - 전시면적 : 10,000m² - 참가업체 : 225개사
청두 한국문화상품 판촉전 (9월/청두)	▪ 현지 최대 백화점 공동 판촉전 - 참가업체 : 중국 투자기업 20여개사 - 청두 '이토요카도' 백화점 3개점 동시 진행 - '청두 물류센터'를 통한 물류·운송 지원

□ 신성장산업 수출 지원 확대

- 중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여 차세대 對中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 중국지역본부에서는 중국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및 지원이 예상되고 향후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신성장분야 선정
 - 자동차부품, 반도체, IT 및 전기전자 제품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과 함께 동 부문에 대한 사업 영역 확대
- 중국지역본부 선정 4大 신성장분야 및 주요 추진사업

구 분	주요 추진사업	비 고
환경산업	중국 환경산업 자료발간(6월) 환경(입찰)시장 설명회(10월)	中 정부차원 집중지원 : 20억불 ('06~'10) 환경설비수출로드쇼 (09년 예정)
문화컨텐츠	China Joy 로드쇼(7월) 디자인 코리아 상담회(9월)	디자인, 캐릭터 등 신규분야 공략, 선점 게임, 캐릭터 2대 수출시장
유통·물류	유통시장 진출가이드(6월) 소비재 유통망 상담회(9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개방 확대
자원에너지	태양광 발전 에너지 상담회 (10월, 투자유치활동 병행)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시장 진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금융 연계모색

□ 지역별 특화산업 주력

- 지역별 경제 다극화·다원화 추세를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전략품목 발굴 및 집중 지원

[무역관별 특화 산업群]

무역관	특화산업	무역관	특화산업
상하이	자동차부품	베이징	플랜트
칭다오	전력설비	다롄	조선기자재
광저우	전기전자	청두	패션의류
우한	건자재	타이베이	문화콘텐츠
홍콩	IT전자		

□ 빅바이 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

- 무역관별로 특화산업 중심의 빅바이어 관리를 체계화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
 - 품목별 10대기업 또는 매출 1억불 이상 규모의 타겟 바이어 120개사 관리

[빅바이어 관련 주요 추진사업]

주요 사업명	사 업 내 용
GM Auto Plaza Shanghai (3월/상하이)	▪ 美, 아시아, 중국지역 구매책임자 등 GM 관계자 89명 및 국내 자동차부품 생산기업 44개사 참가 - GM구매정책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Premium China 상담회 (10월/서울)	▪ 中 산업별 빅바이어 15개사 초청·방한 상담회 - 다국적 유통기업 Grainger, Lowe's 및 中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 창홍 등
조선기자재 수출 상담회 (11월/다렌)	▪ 대형 조선소 및 선박회사 구매사절단 파견 - 대련선박중공업조선공사 등 대형 조선업체 유치

일본지역

I. 경제여건 및 전망

1. 경제현황

□ 200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2.0% → 1.3%

- 2002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후 최장의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유가 급등 및 세계경기 부진에 따라 경기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
 - 연초 일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하향 조정
 - 민간경제연구소도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였는데, 올해 8월 기준 일본 내 21개 민간 경제연구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7%(연초 평균 : 1.6%)
- 일본 정부 및 중앙은행 모두 현재의 경제상황을 경기둔화 추세로 판단
 - 일본정부는 8월 월례경제보고에서 현재 경기를 『경기가 약화하는 조짐이 보임』으로 표현
 - 일본은행 역시 최근 8월 금융경제월보에서 『경기가 감속하고 있음』에서 『정체되고 있음』으로 경기판단을 하향조정

□ 무역수지 흑자규모 대폭 감소

- 2008년 상반기 일본의 수출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원유 수입 증가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흑자액이 전년 동기대비 42.1% 감소
 - 자동차, 광물성연료, 철강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원유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54.0%증가

□ 물가급등에 따라 민간소비 위축

- 원유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007년도 기업물가지수는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 지속
 - 기업물가지수 증가율 : 2.3%('07) → 4.8%('08년4~6월, 전년 동기대비)
- 석유제품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도 급등하면서 민간소비 위축 심화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3%('07) → 1.5%('08년4~6월, 전년 동기대비)
 - 민간소비 증가율 : 1.4%('07) → -0.5%('08년4~6월, 전년 동기대비)

2. 향후 전망

□ 2009년 이후 경기회복 전망

- 올해는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2009년 이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2009년 이후 세계경제가 서서히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에너지·원재료 가격 상승의 영향이 약화되면서 성장률도 점차 높아질 전망
 - 민간 경제연구소는 2009년도 중반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1.3%(민간연구소 21개 평균)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가 당분간 일본 경기를 뒷받침

-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성장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들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 예상
 - 2007. 9월 이후 일본의 총 수출액 중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은 증가 추세

II. 일본지역 시장 여건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전망

□ 對日 무역수지 적자규모 확대

- 올해 들어 對日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對日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전년 동기대비 30억 달러 증가)
- 올해 1~7월 중 對日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6.0% 증가한 17,29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액은 37,42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6% 증가
- 對日 무역수지 적자규모 확대 요인
 - 일본과 부품소재 분야의 산업내 교역이 활발하고 핵심 부품소재의 對日 의존도가 높아 부품소재 분야에서 높은 무역수지 적자 발생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호조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증가하면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수입도 증가

※ 대일 무역수지 적자와 우리나라 수출과의 상관계수는 0.93(자료원 : 산업연구원)

[對日 부품소재 적자액 및 비중]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적자액(억달러)	161	156	187
비중(%)	65.9	61.4	62.5

주 : 비중은 전체 대일 무역수지 적자액 중 부품소재 적자액 비중

□ 엔고의 영향으로 對日수출 회복 전망

- 2007년에는 엔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對日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 2007년 우리나라의 對日 수출은 전년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올해 들어 엔고의 영향으로 올해 1~7월 중 對日 수출은 16.0% 증가

※ 2008. 1-7월 중 대일 수출액 : 17,291백만달러

- 올해 하반기에는 원화가치 하락과 엔고의 영향이 겹치면서 對日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다만, 고유가, 세계 경기부진, 미국 금융시장 불안 등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이 심화될 경우, 일본 경기둔화 가속화에 따라 우리의 對日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III. 진출확대 전략

1. 수출확대 유망분야

☐ 무선통신기기

- 삼성, LG 등 우리나라 휴대폰 메이커들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은 품질을 바탕으로 일본시장에 진출하였고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이는 현지 통신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진출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
- 이처럼 일본 현지에서 국산 휴대폰이 호평을 받고 있고 우리 업체들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향후 對日 휴대폰 수출 호조 전망

☐ 기계부품

- 신흥 개도국 경제성장에 따라 일본산 기계류 수입수요 확대
- 이에 따라, 일본 내 기계류 생산이 호조를 보이면서 對韓 기계부품 수입 수요도 증가
- 우리나라는 범용제품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원화환율 상승, 엔고 등 수출여건도 좋아지고 있어 對日 기계류 수출 유망

2. 수출 확대 전략

☐ 부품소재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

- 한국 부품산업 전시상담회
- 일본 내 부품소재 전시회와 연계하여 한국 특별관 운영을 통해 단독 전시회 대비 높은 사업성과 거양

- 일반 수출상담 부스 외에 부품소재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 상담 전담 부스 설치를 통해 일본 부품소재 기업 투자유치 확대 및 기술이전 지원
- 일본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대형 업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창출 노력 전개

아시아·대양주지역

I. 경제여건 및 전망

1. 경제현황

가. 아세안 지역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소비시장 확대

- 베트남은 7~8%대의 고도 성장궤도에 진입했으며 2007년 경제성장률 기준, 싱가포르 7.7%, 필리핀은 7.3%,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는 6%대 육박
- 아세안 주요국들은 고도 경제성장 지속, 증권시장 호황,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에 따라 가계 가처분 소득 꾸준히 증가
 - 소득향상은 구매력 증가, 고가품 수요증대로 이어져 아세안 주요국의 소비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은 2015년에는 1억 소비인구의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아세안 주요국의 소비시장 성장률]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베트남	128.7%	71.6%	35.4%	17.4%	13.4%
필리핀	84.1%	65.4%	39.0%	9.8%	16.2%
태 국	79.1%	27.5%	24.3%	14.2%	8.8%
인도네시아	144.8%	207.8%	73.3%	14.8%	8.2%

자료원 : 각국 통계청, OECD, 유럽통계청, Euromonitor International 자료종합

□ 경기 호조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은 둔화

- 최근 국제 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내수소비 및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아세안 각국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나. 인도·서남아 지역

☐ 최근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인도 경제성장세 둔화

- 인도 경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고유가 및 물가불안 등에 따라 산업 생산량 둔화추세
- 이에 따라, 올해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 중앙은행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어 민간소비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서남아 시장통합 추진

- 인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 7개국 협력체인 SAARC는 EU식 통합을 목표로 정치·경제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지역통합을 추진
- 서남아 7개국은 지역통합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2006. 1월부터 발효

다. 대양주 지역

☐ 호주 경기 하강

-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오던 호주 경제는 세계 경기침체, 물가상승, 가계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하강국면 진입
- 2007년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4.2%에 달했으나 올해 성장률은 1.75%로 크게 하락할 전망
- 이와 함께, 호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현지기업 자금조달 애로, 호주화 평가절상 등에 따라 호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도 약화
-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자원 수요 급증에 따라, 자원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 및 글로벌 신용경색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내수부진과 기업투자 감소세 지속

2. 향후 전망

□ 아세안 지역 :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 글로벌 경기침체, 고유가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
-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원부문 투자 및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 기조는 지속 전망
- 다만, 필리핀과 같이 소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수입물가 급등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상존
- 인도는 사회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포인트 이상 하락할 전망

□ 대양주 지역 : 호주 경기침체 지속

- 자원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지속 전망
- 자원수출이 급격한 경기하락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물가상승 및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라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당분간 경기침체 지속 전망

II. 아시아·대양주지역 시장 여건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전망

□ 아세안 :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수입시장 여건 변화

- 아세안의 적극적인 FTA 추진은 우리에게 기회임과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아세안은 한국, 중국, 일본 등과의 FTA 체결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
 -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상품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對아세안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 아세안은 우리의 경쟁국들과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어 아세안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

※ 올해 7. 1일부로 日-인도네시아 EPA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 시장에서의 일본제품 가격경쟁력 제고 → 우리 제품과의 경쟁격화 우려

□ 서남아시아 : 한-인도 교역액 급증 추세

- 한-인도 양국 교역액은 2003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1~7월 동안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3.8%, 수입액은 60.1% 증가
 - 수출은 자동차부품, 경유, 합성수지, 휴대폰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나프타, 합금철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한-인도 CEPA 협상 타결 이후 교역규모 큰 폭 증가 전망
 - 현재 한-인도 CEPA 13차 협상이 진행 중이며 금년 내 타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바, 내년부터 양국간 교역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대양주 : 올해 들어 對호주 수출 호조세

- 올해 1~7월 중 對호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33.5% 증가
 - 對호주 수출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경유(365.6%) 및 금(250.0%)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수입증가는 석탄, 원유 등 에너지자원 수입비용 상승에 기인

III. 진출확대 전략

1. 수출확대 유망분야

□ 수출 유망분야 및 전망 근거

분 야	근 거
FTA 수혜품목	▪ 한-아세안 FTA 발효에 따른 점진적 관세인하 ▪ 일반 품목군의 90% 이상은 2010년까지 관세철폐
IT전자정부	▪ 인도, 인니, 방글라데시 등에서 이동통신 가입자수 급증 ▪ 싱가포르의 차세대 국가정보통신망(NGNII) 구축사업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문화컨텐츠	▪ 동남아에서 서남아로 한류 확대 ▪ 방송 및 이동통신산업 발전에 따라 문화컨텐츠 수요 증가
기계설비류	▪ 베트남, 인도 등의 사회인프라 투자 확대 ▪ 우리기업 투자진출 확대에 따라 기계류 수출 증가 ▪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수요 증가
조선기자재	▪ 인도 조선업 호황에 따라 관련 기자재 수요 확대 ▪ 인도 조선업은 향후 10년간 매년 30% 성장 전망
자동차부품	▪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호주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악화에 따라 수입수요 증가
소매유통	▪ 베트남 신소비계층 부상에 따라 민간소비 확대 ▪ 인도, 필리핀 등의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세

2. 수출 확대 전략

□ 한-아세안 FTA 활용사업

○ 한-아세안 FTA 홍보 강화

- 동남아 각국 정부의 한-아세안 FTA 홍보활동이 부족한 상황인 바, FTA 홍보행사(FTA 홍보 설명회, 홍보자료 배포 등) 강화 필요

○ FTA 수혜품목 마케팅 강화

- 한-아세안 FTA 발효에 따라 연도별로 관세가 인하되고 있으므로 관세인하 품목 위주로 무역사절단 파견 등 마케팅 활동 강화
- 아세안 회원국의 국별 경제적, 문화적 특성과 FTA 적용 조건을 감안하여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

□ 개성공단 제품 마케팅 강화

○ 한-아세안 FTA의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홍보

-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역외가공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
-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로 구성된 무역사절단 또는 전시회 추진

□ 현지 투자진출 기업 활용사업

○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의 국내 원부자재 소싱 확대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및 부품의 국내 아웃소싱 유도
- 중국-동남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합동 설명회 개최를 통해 공사의 아웃소싱 지원기능 소개

러시아·CIS지역

I. 경제여건 및 전망

1. 경제현황

□ 러시아

- 물가급등, 글로벌 신용경색 등의 여파로 경기 상승세 주춤
 - 러시아는 원유수출 호조로 올해 1~8월 동안 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에너지 생산원가 상승 등 물가불안 심화로 경기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

□ CIS 지역

- 우크라이나 : 인플레이션 심화, 경상수지 적자 확대
 - 올해 6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29.3%에 이르고 있으며 1/4분기 경상수지 적자폭이 36억 달러(전년대비 3배)로 확대되는 등 경기침체 우려 현실화
- 카자흐스탄 : 경제성장률 급감, 민간소비 급감
 - 세계 경기침체,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 큰 폭 하락 : 10.5%(‘07. 1/4분기) → 6.0%(‘08. 1/4분기)
 - 올해 5월 물가상승률이 19.5%에 달하는 등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금융부실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추세 : 14.0%(2007년) → 6.1%(2008년 상반기)
- 우즈베키스탄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호조세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금, 가스, 원면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호조세 지속 : 200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9.3%

○ 아제르바이잔 : 고도 경제성장세 지속

- 카스피해 유전 개발에 따른 오일달러 유입으로 2000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률 이루고 있으며, 2007년에는 25.0%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세 시현
- 오일달러 유입으로 통신, 운송, 건설 등 사회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 급증추세
- 올해에도 석유 및 가스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13%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전망

2. 향후전망

□ 러시아

-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성장기조는 유지될 전망
- 올해 러시아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민간소비 위축 예상
- 반면,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막대한 오일달러가 유입되고 있고 각종 원자재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
- 이에 따라, 올해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8.1%)보다 다소 낮아진 7.8%에 이를 전망

□ CIS 지역

-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경기 둔화, 우즈베키스탄 및 아제르바이잔은 경기호조세 지속
- 우크라이나 및 카자흐스탄은 글로벌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인한 금융시장 침체, 고유가에 따른 물가불안 등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세 둔화 전망
-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미국발 신용경색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외화유입 증대로 소비 및 투자가 활기를 띄고 있어 경기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II. 러시아·CIS지역 시장 여건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전망

□ 러시아

- 원유 및 원자재 수출호조, 소비수요 증가에 따라 교역액 급증
 - 올해 상반기 러시아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교역액도 2007년 상반기 대비 42% 증가
 - ※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수출증가율 : 74.3%, 수입증가율 : 25.6%
-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이 러시아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나, 러시아 가계소득 증대에 따라 구매패턴이 가격 위주에서 브랜드 및 품질로 옮겨가면서 국산 제품 진출여건 개선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플랜트·건설 기자재 수요 증가
 -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2013 자바이칼-극동 발전 프로그램』에 따른 건설 붐으로 관련 기자재 수요 증대
 - 러시아 정부는 동 프로젝트에 168억 달러를 투입하여 6,600Km 연장의 도로를 건설하고 공항 및 항구 등을 신규 건설하거나 개보수 할 계획

□ CIS 지역

- 우크라이나
 - 향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對우크라이나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
 - ※ 올해 7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우크라이나 수출액은 12억 달러로 전년도 수출액(15억 달러)의 80%까지 육박
 - 최근 일본산 자동차 및 가전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우리 기업에게는 위협요인

○ 카자흐스탄

- 고유가 및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입수요 둔화
-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제품 수입은 크게 증가 (전년 동기대비 52.1% 증가)

○ 우즈베키스탄

-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확대에 따라, 원부자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세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합성수지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
- 최근 들어 중국, UAE 등으로부터의 투자 및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CIS 국가들 간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경쟁 격화

○ 아제르바이잔

-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수입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오일달러 유입에 따라 구매력도 급증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도 확대 일로

III. 진출확대 전략

1. 수출확대 유망분야

☐ 건설·플랜트 기자재

- 대규모 사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건설·플랜트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
 - 러시아 : 극동지역 발전 프로젝트, 2012년 APEC 준비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어 건설장비, 플랜트 기자재 수요 확대
 - 아제르바이잔 :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발전, 통신 등 사회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유탐사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 수요도 급증추세

☐ 자동차 및 부품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 우리기업 투자진출, 관세인하 등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 수출 유망
 - 아제르바이잔은 두자리 대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 소득이 급증하면서 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 수입수요 확대
 - 국산 자동차 메이커의 우즈베키스탄 조립공장 생산량 확대에 따라 CKD 방식의 수출 호조세
 - 우크라이나는 WTO 가입(2008.5.16)에 따라, 2009년부터 자동차 수입관세가 현재의 25%에서 10%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향후 자동차 수입수요 확대 전망

☐ 이동통신

- 러시아, CIS 지역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인터넷 인프라 확충 수요 증대
 - 러시아는 모바일 통신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모바일 통신시장 규모는 2007년 25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31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

- 우즈베키스탄은 인터넷 인프라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각 산업별로 정보화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자재 및 솔루션 수요 급증 전망

2. 수출 확대 전략

☐ 프로젝트 수주 지원활동 강화

○ EURO 2012 특수 활용

-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공동으로 2012년에 EURO컵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향후 경기장 건설 및 사회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전망
- EURO 2012 조직위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입찰정보 조기 입수, 국내기업 홍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입찰참여 지원

○ 극동러시아 개발 프로젝트

- 시베리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해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에 극동러시아 개발협력센터 운영 예정

☐ 금융지원을 통한 잠재시장 개척

○ 전대자금, EDCF 또는 현지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한 잠재 수출시장 개척활동 추진

- 대상분야 : 자금력 부족으로 구매를 꺼리고 있는 고가 의료기기, 중장비, 정보화 기기 등

☐ WTO 가입에 따른 시장여건 변화에 적극적 대응

○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에 따라 수입관세율 인하 등 수입시장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2009년 이후 자동차 관세율이 종전 25% → 10%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향후 자동차 시장 성장 및 경쟁격화 전망
- 현지 자동차 전문전시회 참가 확대 및 자동차 부품 아웃소싱 수요 발굴활동 추진

중남미지역

I. 경제여건 및 전망

□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세

- 중남미 경제는 그동안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미국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기 둔화추세
 - IMF에 따르면, 2007년 중남미 경제는 5.6% 성장하는 등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되었으나, 미국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다소 둔화 전망
 - 특히, 對美 경제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파나마 등 중미 국가들이 미국발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
 - 다만, 그동안 중남미 국가들의 거시경제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므로 급격한 경기침체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

[중남미 주요국 경제성장률]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중남미	4.6	5.5	5.6	4.4	3.6
멕시코	2.8	4.8	3.3	2.0	2.3
브라질	3.2	3.8	5.4	4.8	3.7
칠레	5.7	4.0	5.0	4.5	4.5
아르헨티나	9.2	8.5	8.7	7.0	4.5
콜롬비아	4.7	6.8	7.0	4.6	4.5

주 : 2007년은 추정치, 2008, 2009년은 전망치

자료원 : 국제통화기금(IMF)

□ 물가 상승압력 가중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물가 상승압력 가중
 - 특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등에서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데, 상기 국가들의 최근 물가 상승률은 두자리 수

II. 중남미지역 시장 여건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전망

□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동향

○ 對중남미 수출 급증세

- 2003년 중남미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이후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액 급증
-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은 2004년 116억 달러에서 2007년 258억 달러로 불과 3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
- 2008. 1~7월 중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4.1% 증가한 18,753백만 달러

※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증가율은 22.7%

○ 무역수지 흑자액 급증

- 중남미는 우리나라가 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시장
- 2008. 1~7월 중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무역수지 흑자액은 10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3% 증가

※ 2008. 1~7월 중 對유럽 무역수지 흑자액 : 145억달러

□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전망

○ 향후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

- 그동안 중남미 경기호조세 및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확대에 따른 수출 유발효과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향후 중남미 경기둔화로 인해 수출 증가율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

III. 진출확대 전략

1. 수출확대 유망분야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자동차 구매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수요 증가
-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글로벌화 및 중남미 투자진출 확대에 따른 수출 유발효과도 긍정적 요인

☐ 건설 중장비

- 중남미 다수 국가들이 대형 사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건설 중장비 및 플랜트 수출 유망
-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건설 중장비 수출은 2007년에 60.3% 증가한데 이어 2008. 1~7월에도 86.2% 증가하는 등 수출 급증세 지속

☐ 전력 기자재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전력난을 겪고 있어 전력기자재 수요 꾸준히 증가
-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뿐만 아니라 산업용 자가발전 설비 수요도 증가세

2. 수출 확대 전략

☐ 중남미 대형 프로젝트시장 진출 확대

- Latin Project Show(중남미 대형 프로젝트 설명회)와 같은 사업을 매년 지속적 추진함으로써 중남미 대형 프로젝트 시장 진출 확대

- 중남미지역본부는 2008. 6월 추진한 Latin Project Show를 통해 남미 유력 발주처를 초청,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중남미의 대형 프로젝트시장의 경우, 시장규모는 큰 편이나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바, Latin Project Show를 연례 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중남미 프로젝트 시장 진출기회 확대

□ Latin Business Week 사업을 통한 중남미 IT·전자시장 진출 확대

- Latin Business Week 사업 개요
 - 추진연혁 : 2003년 이후 매년 추진
 - 타겟분야 : IT·전자
 - 주요내용 : 중남미 IT전자 전문 바이어 방한 유치, 수출상담회 개최
- 사업효과 : IT·전자 전문전과 연계마케팅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매년 개최되는 한국 전자전과 연계하여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

□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 중남미 국가들의 역내외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FTA 체결 지연에 따른 불이익 우려
 -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신흥시장 개척 확대를 위해 중남미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 필요

중동·아프리카지역

I. 경제여건 및 전망

1. 경제현황

☐ 오일머니 유입 급증

-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세계 원유 생산량의 43%를 점유하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오일머니 유입 급증
- 2007년 원유 수출액은 6,00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올해에는 작년대비 평균 유가가 4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 금년에는 오일머니 유입액은 8,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 산유국 중심으로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 사우디, 두바이 등 산유국들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석유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편하는 산업 다각화 정책 추진
- 이와 관련하여, 걸프연안 8개국들은 향후 2년 간 제조업, 관광, 정보통신 산업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9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발주 예정

2. 향후 전망

☐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 급증으로 경기호조세 지속

- 중아지역으로 유입된 막대한 오일머니로 인해 소비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경기호조세 지속 전망
- 올해 중동경제는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프리카 경제도 산유국들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경제성장률이 6.8%에 달할 전망

☐ 중동지역 정정불안은 변수

- 이라크 내 종파 간 내전,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스라엘-시리아 간 갈등 등 정정불안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

II. 중아지역 시장여건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전망

1. 중아지역 시장여건

☐ 대형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관련 기자재 수입수요 확대

- 석유·가스, 석유화학, 전력, 담수, 부동산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확대
- 걸프연안 8개국의 '07~'08년 2개년 간 발주 예정 프로젝트 규모는 약 8,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경기호조세 지속에 따라 수입시장 규모 급증

- 최근 7년간 중아지역 수입시장 규모는 연평균 39% 증가
- 수입시장 규모 : 2,910억 달러(2000년) → 8,169억 달러(2007년)

☐ 우리나라의 최대 플랜트 수주 시장

-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플랜트 수주액 중 중아지역 비중 48%
- 2007년도 우리나라의 중아지역 플랜트 수주액은 20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요 수주분야는 발전담수, 석유화학, 해양플랜트 등

2. 우리나라와의 교역전망

☐ 수출호조세 지속 전망

- 중아지역 경기호조세 지속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수입수요 급증 추세
-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중아지역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6.2% 증가한 17,286백만 달러를 기록

- 오일머니 유입 급증에 따라 중아지역 경기호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對중아지역 수출호조세 지속 전망

[우리나라의 對중아지역 수출 동향]

(단위 : US\$백만, %)

구 분	중동		아프리카		중아지역 전체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6	14,463	18.2	7,730	24.6	22,193	20.3
2007	19,721	36.4	8,256	6.8	27,977	26.1
2008.1~6	12,691	36.5	4,595	4.3	17,286	26.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중아지역 플랜트 수주 확대

○ 중동을 중심으로 플랜트 수주 확대 예상

-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가 중아지역에서 수주한 금액은 159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우리나라 플랜트 수주액의 61%

※ 지역별 플랜트 수주액 : 중동 137억 달러, 아프리카 22억 달러, 북미 32억 달러, 유럽 40억 달러

- 중아지역 경기호황에 따라 플랜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우리나라의 중아지역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전망

III. 진출확대 전략

1. 수출확대 유망분야

☐ 플랜트 기자재

- 고유가에 따른 경기호황으로 담수, 전력, 건설 등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자재 수입수요 증가
- 우리 업체들의 중아지역 플랜트 수주가 늘어나면서 국산 기자재 수출 호조세 지속
- 품목별로는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류 및 발전기,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 수출 유망

☐ 건설 중장비

- 중아지역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준비 등에 따라 건설경기 호황이 지속되면서 건설 중장비 수요 급증
- 특히, 올해 중 국내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알제리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으로 보여 국산 건설 중장비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및 부품

-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증가, 국산차 이미지 제고 등에 따라 국산 승용차 및 부품 수입수요 확대 전망
- 특히, 이집트는 교통법 개정예 따라 향후 3년 이내에 20년 이상된 택시들의 운행이 금지될 예정이므로 택시 교체수요 급증 전망
- ※ 교통법 개정예 따라 향후 3년 동안 6-8만대의 택시가 교체될 것으로 추정

□ IT·전자정부

- 사우디, 리비아 등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프로젝트 추진
 - 사우디 : 국가 IT 중기계획(NITP)에 의거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 추진
 - 리비아 : 전자정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리비아 전자정부 추진위」를 설치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대상 국가로 선정

2. 수출 확대 전략

□ 『중아 플랜트·건설 수주지원센터』 운영

- 주요 사업내용
 - 수주지원센터 프리미엄 서비스(1:1 맞춤형 지원 사업)
 -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지원
 - 플랜트 기자재 벤더등록 지원

[중점 추진 프로젝트]

프로젝트	금액	프로젝트 내용	진행상황
파키스탄 엔진발전소	1억불	100MW 발전소	발주타당성 조사
아부다비 마리나	4억불	호텔, 아파트, 사무실	발주계획
아부다비 병원	2억불	병원(병동300개), 호텔,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 예정
시리아 풍력발전소	천만불	풍력발전소 3.75MW	제안서 제출 요청
아부다비 화장지공장	천만불	일일 생산량 100톤 규모 공장	제안서 제출 완료

□ 무역관 관할국 진출 확대

- 무역관 관할국 중 신흥 유망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대상지역 : 수단, 탄자니아, 가나, 튀니지 등 4개국

- 주요사업 : 진출 유망분야 발굴, 현지 프로젝트 컨설턴트 운영, 지역별 특화 시개단 파견 등

□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지원

○ 사업개요

- 협력기관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 참여무역관 : 15개(수주지원 3개, 정보지원 12개)
- 주요활동 : 원전 건설정보 수집 및 프로젝트 수주활동 지원

○ 중아지역 주요 원전건설 프로젝트

- 모로코 : 1,000MW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입찰심사(한수원 입찰참가)
- UAE : 원전 건설 타당성 조사 중
- 요르단 : 1,000MW 규모 원전건설 타당성 조사 중
- 남아공 : 제2기 원전건설 프로젝트 추진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한-EU FTA가 수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바이어 및 대한 잠재투자가 설문조사 결과	2008.1
08-002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2008.1
08-003	일본 소비패턴 동향 및 시사점	2008.2
08-004	주목해야 할 이머징 마켓의 소비 패턴 변화	2008.3
08-005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및 진출 전략	2008.3
08-006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2008.3
08-007	한-GCC FTA 체결에 대한 시각 및 반응	2008.3
08-008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2008.4
08-009	중동·아프리카 프론티어 시장 유망품목과 성공전략	2008.4
08-010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08.4
08-011	중국·인도·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2008.4
08-012	러시아기업의 해외진출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2008.4
08-013	2008 서남아시아를 주목하라	2008.4
08-014	미국 FDA 통관정책 및 우리 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2008.4
08-015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의 해석	2008.5
08-016	해외자원개발 피해사례 및 국가별 유의사항	2008.5
08-017	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6
08-018	세계 섬유시장변화와 우리 해외생산전략	2008.6
08-019	베트남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2008.6
08-020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8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8.6
08-021	중, 하이테크 기술기업 우대혜택 변화와 전망	2008.6
08-022	대중국투자 뉴 트렌드와 시사점	2008.6
08-023	중동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정책 및 우리의 진출전략	2008.6
08-024	떠오르는 마그레브 시장, 이렇게 공략하라	2008.6
08-025	베이징올림픽의 중국 소비경제 효과	2008.6
08-026	초고유가 시대 :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절약상품 동향	2008.7
08-027	아프리카 이동통신시장 빅뱅	2008.7
08-028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국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책	2008.7
08-029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 글로벌 중소기업을 향해	2008.7
08-030	한국 및 경쟁국 기업의 해외투자진출 유형 선호 비교와 시사점	2008.7
08-031	작은변화 큰시장 - 마이크로트렌드를 포착하라	2008.7
08-032	인도시장 주요수출품목의 한·중·일 경쟁 분석	2008.7
08-033	KOTRA-무역협회 공동 FTA가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조사	2008.8
08-034	이라크 진출, 이제는 준비할 때	2008.8
08-035	동서남아 진출, 이슬람 금융으로 하라	2008.8
08-036	베트남 경제분석과 향후 전망	2008.9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8.1
08-002	러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8.1
08-003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10대 판례집	2008.2
08-004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2008.4
08-005	청산매뉴얼	2008.5
08-006	중국지재권대리사무소 디렉토리	2008.5
08-007	중국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5
08-008	EU 현지 기업들의 REACH 대응사례와 시사점	2008.5
08-009	중국 신노동법 下 인력관리 매뉴얼	2008.5
08-010	2007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08.6
08-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7	2008.6
08-012	북미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6
08-013	중국투자가 심층조사 보고서	2008.6
08-014	말레이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08.6
08-015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8.6
08-016	중국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2008.7
08-017	유럽 대형 IT 유통업체 진출 가이드 - 7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008.7
08-018	2008년 세계 주요도시의 생활여건	2008.7
08-019	Q&A로 본 베트남투자 A to Z	2008.7
08-020	2007/2008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CD)	2008.7
08-021	2008 경기국제보트쇼 종합보고서	2008.7
08-022	베트남 진출기업 청산매뉴얼	2008.7
08-023	태국 투자실무가이드	2008.7
08-024	2008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애로조사	2008.8
08-025	2008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애로조사	2008.8
08-026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해설 및 대응방안	2008.8
08-027	아시아 자원개발진출가이드 I - 인도네시아,인도,방글라데시,호주,캄보디아,뉴질랜드 -	2008.8
08-028	아시아 자원개발진출가이드 II - 필리핀,베트남,미얀마,태국,스리랑카,말레이시아,파키스탄 -	2008.9
08-029	중국 주요 업종별 서비스시장 진출가이드	2008.9
08-030	2008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08.9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8.1
08-002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포럼	2008.1
08-003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가이드북	2008.1
08-004	한-아세안 FTA순회설명회 (Korean -Asean FTA Seminar)	2008.5
08-005	몽골투자포럼(Mongol Korea Investment Forum)	2008.5
08-006	러시아 우랄시장 설명회	2008.5
08-007	극동 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2008.5
08-008	중국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설명회	2008.5
08-009	중동 산유국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2008.6
08-010	Global Project Plaza 2008	2008.6
08-011	한일 에너지절약환경 포럼	2008.6
08-012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3	러시아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08-014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5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08-016	러시아 모스크바주 투자환경 및 한국전용공단 설명회	2008.8
08-017	러시아 지식재산권 설명회	2008.9

작성자

◆ 통상전략팀 고일훈 과장

◆ 8개 해외지역본부

Global Business Report 08-038

수출시장 긴급점검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확대 전략

발 행 인 | 조 환 익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8년 9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